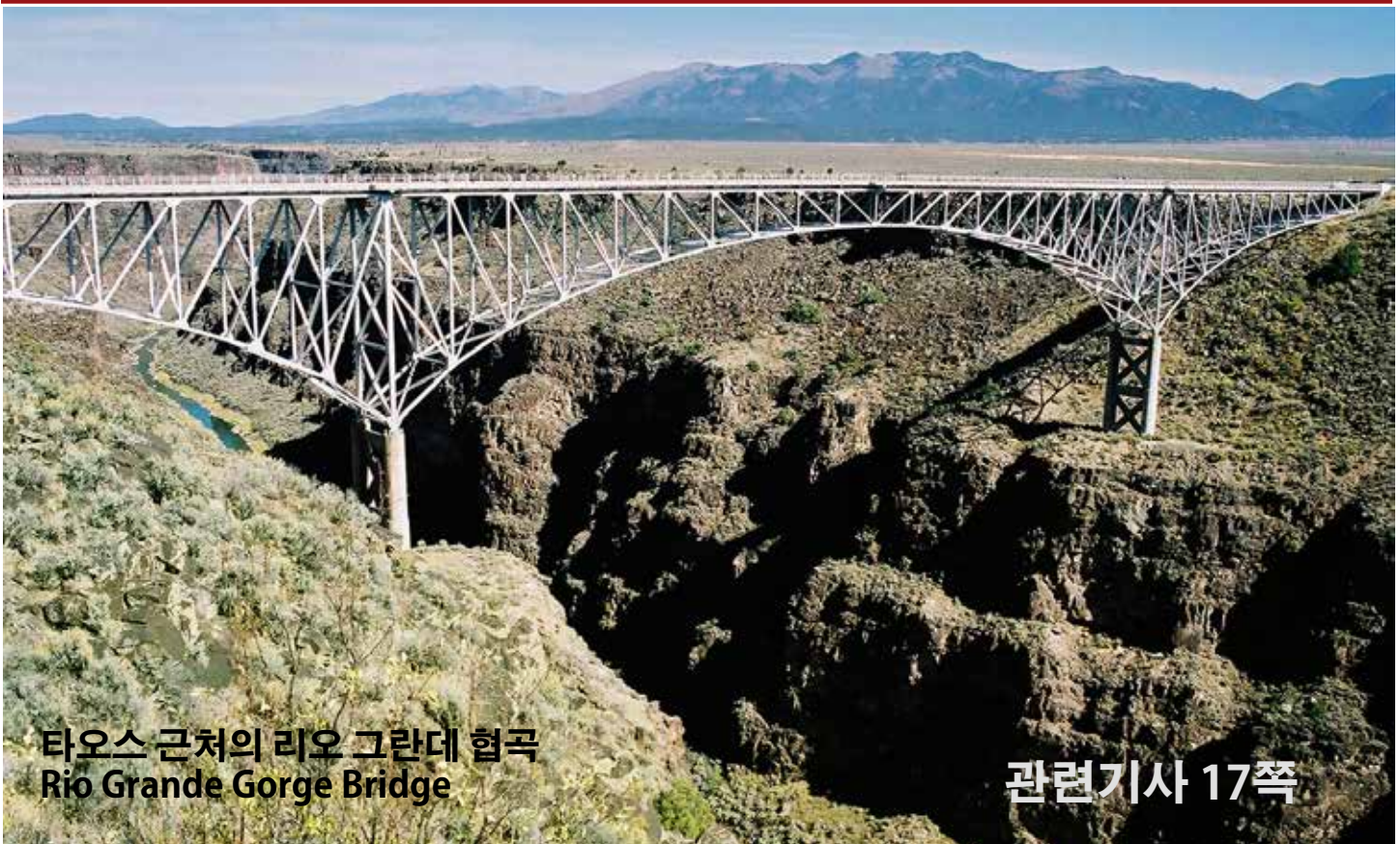


뉴멕시코주  
한인들을 위한

# 광야의 소리

## Voice in the Wilderness

9-10월호  
2018년



타오스 근처의 리오 그란데 협곡  
Rio Grande Gorge Bridge

관련기사 17쪽

한인회장인사

## 교민 여러분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가 물러나고 이젠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간도 교민 여러분 가정에 평강이 깃드셨을 줄로 믿습니다. 9월에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중 특기할만한 행사는 9월 18일에서 19일 (화, 수)까지 1박 2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파고사 스프링스로 효도 온천관광을 떠납니다. 이를 위해



문상귀

뉴멕시코 한인회장

지난 7월 23일에는 타노안 클럽에서 LA 총영사배 한인회 어버이회 효도 관광 기금 모금 골프대회를 열었습니다. 골프대회에 참가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교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8월 8일에는 임원, 이사 합동회의를 열고 18대 한인회장 선거일을 2018년 12월1일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 안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는데 선거운동 과열 양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또한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인회가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 주요내용 CONTENTS

한인회소식 | 교민여러분 | 문상귀 : 1

한인회소식 | 골프대회 광고 : 2

한인회소식 | 한인회 행사안내 / 광고 : 3

지역사회소식 | 뉴멕시코 지역 한인사회 지난 소식 : 4-6

지역사회소식 | 뉴멕시코 지역 한인교회 소식 : 7-8

칼럼 | 창립 36주년을 맞이 하면서 | 김기천 : 9

지역사회소식 | 뉴멕시코 한국학교소식 | 박영신 : 10

수필 | 농주 | 이정길 : 11

기행문/선교보고 | 어찌 찬양 안할까? | 박선희 : 12

기도문 | 주일 대표 기도 | 이성빈 : 14

생활상식 | 행복한 미국생활 #20 : 자녀의 학교입학/적응 : 15

관광안내 | 타오스 | 이경화 : 17

수필 | 과학기술은 끝없이 발전하고 있다 | 김준호 : 21

광고 | 뉴멕시코주 한인교회 안내 : 23

광고 | 뉴멕시코주 한인업소 : 24-25



## 한인회장 인사 (1면에서 계속)

‘풀뿌리 운동’을 위해 4천 불을 지원 받았습니다. ‘풀뿌리 운동’은 미국시민권을 가진 교민들에게 미국의 정치 참여를 위해 유권자등록을 하도록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유권자등록을 통해 선거 참여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한인들의 권익을 신장하는 운동입니다. 감사 섭외 등으로 아직 정확한 일정은 잡지 않았지만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열 예정입니다. 정확한 날짜가 나오는 대로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광야의 소리’를 잘 읽어보시면서 순회 영사업무와 다른 행사를 참고해 주십시오. 저의 임기 동안 남은 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교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뉴멕시코주 교민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뉴멕시코 역대 한인회장단 배 함께, 한가위 골프대회

9월24일 (월)  
UNM Championship  
Golf Course

주최  
NM 한인회장단

경품후원

Kelly/Liquor Barn  
Kelly/Mt. Run  
Kelly 4th Street  
Kelly Bosque Farms  
Kelly Centural  
Kelly Juan Tabo  
Kelly Wyoming  
Samurai Grill & Sushi  
CASA Liquor  
A-1 Market  
Atomy NM

제1대 박순삼  
제2,3대 이경화  
제4대 김준호  
제5대 (故)이탁  
제6대 (故)안장환  
제7대 정풍자  
제8대 신광순  
제9,10대 최진  
제11대 이정우  
제12대 문상귀  
제13,14대 김두남  
제15대 조규자  
제16대 김영진  
제17대 문상귀

공상하고  
경험한  
한가위

Hole In One  
\$10,000  
Hole In One (2)  
켈러웨이 클럽세트  
국내 여행권 2매  
Sponsored by

문의/참가신청  
참가비: \$80  
505-933-9004  
Call or TEXT

대회관리/운영  
뉴멕시코 골프리크

Samurai  
GRILL & SUSHI BAR

뉴멕시코주한인회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한인회소식

## 뉴멕시코주 역대한인회장단배 골프대회 9월24일로 확정

9월24일 월요일 1시부터 역대한인회장단배 골프대회가 열립니다. 본대회는 뉴멕시코주 역대 회장님들께서 지난 7월 어버이회 자금마련 골프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것에 대한 지난 대회 참가자 여러분과 한인여러분들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역대 한인회장님들께서 십시일반 대회 준비금을 마련해주셨고, 뉴멕시코 한인골프리그에서 대회준비와 운영을 맡아서 준비되었습니다.

Kelly/Liquor Barn, Kelly/Mt. Run, Kelly 4th Street, Kelly Bosque Farms, Kelly Centural, Kelly Juan Tabo, Kelly Wyoming, CASA Liquor, Atomy NM에서 소정의 경품을, Samurai Grill & Sushi Bar 에서 \$10,000의 할인권 상품을, 민명희 한인회 부회장께서 한국학교 홍보를 위해 2019년 샌디아 골프 회원권을 각각 지원해 주셨습니다.

본 대회는 7명의 챔피언 자리를 놓고 UNM Championship Golf Course 에서 겨루는 개인전입니다. 점심, 저녁 식사를 포함한 참가비는 개인당 \$80이며 참가신청은 골프리그 505-933-9004로 문자나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 골프대회 수상내역

#### 2018 League Champion

- 참가자중 골프리그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스코어카드를 보내 핸디캡을 공유한 참가자중 본인의 핸디캡을 기준으로 가장 적은 스코어를 적어낸 참가자. 핸디캡을 가지고 있지 않은 참가자는 운영측에서 주변정보를 모아 적절한 핸디캡을 지정합니다.

#### 2018 KANM Champions (남,녀 각 1명)

- 말그대로 토너먼트 당일 가장 낮은 스코어를 적어낸 참가자를 남,녀로 각각 한명씩 수상.

#### 2018 회장단배 Champion

- 신페리오 방식을 사용하여 그날 참가자가 적어낸 홀중에 무작위로 12개홀을 선정하여 그날의 참가자들의 핸디를 정하는 방법. 지난 켈리배 등에서 사용한 예가 있습니다.

#### Closest to the Pin

- 그린을 정해 가장 가까운곳에 공을 보낸 참가자 우승

#### Closest to Center

- 페어웨이 가운데에 줄을 긋고 가장 줄에 근접한 참가자 우승. 동률일 경우 거리가 먼 참가자 우승

#### Longest Driver

- 페어웨이 내에 가장먼 드라이브 샷을 보낸 참가자 우승



9월25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2시까지 한인회관에서 순회 영사업무를 실시합니다.

한인회관 주소: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87112

문의사항: 문상귀 한인회장 505-991-8888

LA 총영사관 : 213-385-9300 내선번호 15 또는 52

순회영사실 이메일: consul-la@mofa.go.kr

## 한인회 9월 예정 행사

- 18일(화) ~ 19일(수) 어버이회 효도관광  
장소 : pagosa hot springs  
시간: 오전 09시 출발 예정 (한인회관)
- 24일(월) 오후 1시 '뉴멕시코주 역대 한인 회장단배골프대회'  
장소: UNM Championship Golf Course  
시간: 오후 1시
- 25일(화) 순회 영사업무  
장소: 한인회관  
시간: 오전 09시 ~ 오후 2시

### ●풀뿌리 운동

9월 말이나 10월 초에 행사 예정(정확한 날짜는 추후 공지 예정)

시민권을 가진 한인들이 유권자등록을 통해 미국정치에 참여함으로 한인들의 권익을 신장하는 홍보 활동입니다.

- 8월 8일 이사회 및 임원회의에서 18대 한인회장 선거일을 12월 1일(토) 에 실시 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선거관리 위원회 구성, 입후보 등록사항 공고는 9월 말경 에서 10월 내 진행될 것입니다.

## 뉴멕시코주 한인 골프리그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리그디렉터: 정대식

리그운영/관리: 이성희

골프리그의 구성 2~3개팀이 캡틴을 포함한 5~6명으로 구성 선수의 구성

현재 각 지역별로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의 사정에 따라 구성 회비: 없음. 2018년 시즌

골프리그 회원의 의무

골프를 즐기고 자신의 핸디캡을 타 회원에게 공유

리그게임의 시간과 장소가 회원의 조건과 맞을 경우 적극 리그게임에 참여

캡틴의 의무

자신의 팀원에게 리그게임의 일정을 공지하고 참여 여부를 관리 골프리그 회의에 참여하여 회원의 의견을 리그에 반영하고

리그의 전반적인 진행 사항에 대해 회원에게 공유

<http://knm.mycloudleague.com/golf/> 리그 홈페이지.

리그에 참여를 원하시는분은 505-933-9004 로 문자나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 뉴멕시코 지역사회 지난소식 (7월-8월)

### 한지혜 양 “피가로의 결혼” 오페라 연주 참여

UNM의 한지혜(Esther Han) 양이 2018년 8월 4일 오후 7시 30분과 8월 5일 오후 2시에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John XXIII Catholic Church(4861 Tramway Ridge Dr. NE)에서 제2 바이올린 연주자로 연주했다.

Musicians for Musicians (Organized by Shutong Li)은 자원 봉사자로 구성된 악단이며 한 양은 MFM의 멤버이다. 한 양은 또한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의 제2 피아노 반주자이며 UNM Health Service Center의 한승우 씨, 아이젠하워 중학교 교사 한은영 씨의 장녀이다. 한편, 한 양의 외조부인 이준우 목사는 수년전 알버커키에 머무는 동안 라스크루시스 한인교회에서 말씀을 전했고 강해숙 사모는 뉴멕시코 한인회 어머니 합창단을 조직해 지휘자로 봉사한 바 있다.



### 2018년 한-미 청소년 의회 교류팀 앨버커키 방문

‘한미 의회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한국 대표단 대학생 6명, 학원생 4명이 앨버커키를 방문했다.

이들은 일주일간 워싱턴 DC에서 미국대표 10명과 만나 미국과 한국의 관계,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간담회에 참가했다.

이후 한국팀은 아칸소(Arkansas) Little Rock를 거쳐 7월 25일 앨버커키에 도착하여 일정을 소화하고 7월 30일 마지막 코스인 산타페 방문 후 7월 31일 LA를 거쳐 귀국했다.

한인회에서는 방문한 학생들을 위해 식사를 대접했고 윤태자 한인회 부회장은 5명 학생의 숙식을 제공했다.



### 문상귀 회장 통일교육 위원회 뉴멕시코 협의회 위원장 추대

문상귀 뉴멕시코 한인회장이 지난 7월 7일 오후 5시 LA에 있는 J.J. Grand Hotel에서 통일부 산하 통일 교육 위원회 뉴멕시코 협의회 위원장으로 위촉받았다.

통일부의 <통일교육지원법> 규정에 따라 2018년 4월 1일 제 21기 통일교육위원 813명 중 한 명으로 위촉받은 문 위원장은 통일 미래를 위해 열심히 소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통일교육위원의 임기는 2년, 2020년 3월 말까지로 한국 내 17개 지역협의회 및 해외 5개 협의회로 구성된다.

<아리조나타임즈에서 발취 2018.8.1.>



### 코윈, 타주 환자 가족에 저녁식사 봉사

코윈은 8월 26일 Ronald McDonald House Charities에서 타주에서 오는 환자 가족들을 위한 저녁 봉사를 했다.

60명 정도의 먹거리를 준비해서 한국 음식에 생소한 분들에게 한국도 알리고 가족들 간호에 지쳐있는 이들을 저녁 대접을 하면서 위로했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윤태자 부회장은 갈 때마다 놀라는데 봉사하는 단체와 기업체가 일 년 365일 끊이지 않는 것이 기적 같이라며 보이지 않는 봉사의 손길이 이 세상의 온기를 더해 주는 것 같아 기쁘다고 했다.

박광종 코윈 회장은 “봉사의 손길이 계속해서 필요하다. 코윈의 봉사활동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분이나 봉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무 때나 서슴지 말고 연락해주셔서 함께 봉사의 기쁨을 맛보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리조나타임즈에서 발취 2018.8.29.>



## 뉴멕시코 지역사회 지난소식 (7월-8월)

### 뉴멕시코 한인회 골프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뉴멕시코 한인회는 7월 23일(월) 12시 30분에 타노안 클럽(Tanoan club) 에 모여 LA 총영사배 한인회 어버이회 효도 관광 기금모금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문상귀 회장은 “뉴멕시코의 골프 애호가들 40여 명이 함께 모여 성대히 행사를 치르게 되어서 감사하다. 무더운 날씨에 함께해 준 모든 분, 특히 행사 준비를 위해 힘쓴 임원진들에 감사하다. 행사를 위해 전직 한인회장단 등 많은 분이 후원해 주셨다. 무엇보다도 푸짐한 경품과 참여로 교민 간의 단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 보람된다. 후원금과 수익금을 통해 한인회 어버이회 효도 관광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골프대회에서 백금상은 고진석 씨, 심강희 씨가 차지해 각각 상금 150불, 금상은 문상귀 회장, 민명희 부회장이 각각 상금 100불, 은상은 조한욱 씨, 홍기택 씨가 상금 50불씩, 장타상은 한영수 씨, 근접상은 정대식 씨에게 각각 50불을 전했다. 모든 상에는 트로피와 상금이 있었는데 상금은 모든 수상자가 후원금으로 다시 돌려다. 행사를 위한 후원으로는 정풍자 전 회장의 1,000불을 시작으로



김경숙 이사장, 문상귀 회장, 박찬영 사무총장이 500불을 후원하고 최진 전 회장, 김두남 전 회장, 김영신 전 한인회장, 임낸시 전 부회장, 민명희 부회장, A-1 마켓, 켈리 산타페 조용일 씨, 김포영 씨, 고산식 씨가 200불에서 300불을 후원했고, 사무라이 일식, 아리랑 쌀 10포대, 차진주 미용 제품, 민명희 부회장이 참여자들의 점심으로 김밥과 빵을 후원했다. 대회에 참가한 민명희 부회장은 “문 회장님을 비롯한 박 사무총장님, 이성희 이사님 등이 정말 많은 수고를 했다. 어제 모인 골프인들이 한데 어울려 뜨거운 피약별도 간 곳 없이 즐겁게 보냈다. 힘써주신 사랑의 손길에 감사하다. 골프도 안 치면서 수고해주신 임원님들도 감사하고 또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서 클럽까지 날라주신 임원들에게 감사하다. 기쁜 하루였다. 문 회장님의 탁월한 골프 기술과 열정 덕분에 같이 묻혀 금상 상패를 가질 수 있었다”고 대회 참여 소감을 밝혔다. <아리조나타임즈 2018.7.25. 전제>

### 한인회 한국전 참전 용사와 오찬

한인회는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65주년을 앞두고 7월 25일 수요일 참전용사회 회원을 초청하여 한국 음식을 대접했다. 문상귀 회장은 “뉴멕시코 한국전 참전용사가 25명이 생존해 계시는데 지난 13개월 사이 다섯 분이 돌아가셨다. 이분들이 살아 계시는 동안 우리가 입은 은혜의 빛을 갚는 일에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인사했다.

문상귀 회장은 또한 본인이 회장직에 있던 지난 2008년 7월 27일 메모리얼 공원에서 한인회가 한국전쟁 기념 제막식에 세 한인교회와 연합으로 가진 행사를 회고했다.

이어 참전용사회 회장 Stanley Jarocki 씨의 답사와 부회장 Ed Heimann을 포함한 회원소개가 있었고 이명길 목사의 식사기도 후 한인회 어버이회 회원과 함께 푸짐한 점심 식사를 나누었다. <아리조나타임즈에서 발취 2018.8.1.>



### 한인회 광복절 기념행사

한인회에서는 8월 15일 박찬영 사무총장의 사회로 73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했다. 이희정 예술부장과 김옥선 씨가 아리랑 춤으로 축하의 자리를 빛냈다.





## 뉴멕시코 지역사회 지난소식 (7월-8월)

### Jonathan Lee 첼로 연주회 성황

Jonathan Lee의 첼로 연주회가 8월 12일 (일) 오후 3시 UNM Keller Hall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연주회는 앨버커키 음악인 협회(Musicians Association of Albuquerque/AFM Local 618) 회장인 Tracey Whitney의 인사와 두 연주자의 소개로 시작되었다.

조나단 씨는 오하이오 신시나티대학교의 College-Conservatory of Music(CCM)에서 첼로 전공으로 졸업하고 현재 Dayton Philharmonic Orchestra 의 멤버로 연주생활을 하고 있다. 신시나티 오케스트라와 신시나티 오페라에서도 연주를 하고 있다. 피아노를 맡은 Sandra Rivers씨는 신시내티 CCM 교수로 한국의 바이올린 연주자 사라 장(Sarah Chang)을 비롯하여 Itzhak Perlman, Kathleen Battle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주자나 Soloist의 반주를 주로 담당했었다.

이번 리사이탈에서 연주한 곡은 Schumann의 Adagio and Allegro Op 70, Beethoven의 Sonata for Piano and Cello in D와 Franck의 Sonata in A for cello and piano였다.

조나단 씨의 할아버지인 이경화 장로는“조나단이 4살 때 첼로를 시작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갑자기 2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은 것 같다. 앨버커키 음악인협회에서 연주회에서 후원해준 것이 조나단에게 큰 격려가 되었다.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첼로에 정진해 나가길 기원하고 있다. 교민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 해주시고 조나단을 격려해주셔서 가족 모두가 감사하고 있다”고 했다. 조나단씨는 산디아 연구소 연구원인 이재원(Jae Lee)씨와 뉴멕시코 필하모니의 바이올린 연주자인 줄레니(Julanie) 슬하의 장남이다. <아리조나타임즈에서 발취 2018.8.15.>



### 제15회 산타페 국제 민속 예술 시장 판매 기록 세워

7월 13일에서 15일까지 열린 산타페 국제 민속 예술 시장(International Folk Art Market)은 행사 동안 330만 달러 상당의 예술 작품을 팔았다. 이는 15년 역사에서 가장 높은 판매 기록으로 작년보다 20만 달러나 증가했다.

CEO인 Jeff Snell은 “다양한 방면에서 행사를 찾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다. 또한 마켓의 베테랑으로부터의 피드백을 통해 행사의 질이 수년에 걸쳐 계속 향상되었다. 그러다가 15주년을 맞은 올해에 에너지가 결합하면서 뭔가 특별한 기록을 이뤘을 것”이라고 했다.

올해 3일간의 행사에는 약 2만 1천 명이 참석했다. 15,600시간이 넘는 일을 해낸 1,700명의 자원봉사자 팀은 마켓의 기적을 일군 비밀군단이다. 올해 마켓의 주제는 “Wear Your Impact”였다. 내년에는 “bringing your impact home”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한국에서는 이대영 이천도자기조합 이사장과, 함정구 이천도예인, 이은하 Ontario Canada 도예인이 참여했다. 김두남 전 한인회장이 가정을 오픈하고 올해에도 도예인들을 위해 봉사했다.

<아리조나타임즈 (2018.7.25.)에서 전제>



사진: (위)김두남, 이대영 이사장, 함정구 이천도예인, 이은하 Ontario Canada 도예인, 심유진 산타페화가  
(아래) International Folk Art Market 전경



## 뉴멕시코 지역 한인교회 소식

###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나바호 인디언 선교 2차 방문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담임:김기천 목사)에서는 선교부(부장: 황경희) 주최로 지난 7월30일 나바호 선교 여행을 다녀왔다. 지난 6월4일 1차 선교로 찾아갔던 쉽 스프링스(Sheep Springs) 마을을 두번째 찾아간 것이다. 새벽 6시에 출발하여 총 20명의 팀과 함께 물품을 실은 트레일러와 2트럭이 함께 150마일을 달려서 켈럽 북쪽에 있는 쉽 스프링스 찹터(Chapter)에 도착하여 예배를 보고 함께 기도하며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이어 봉사 활동을 펼쳤다. 1차 선교때보다 훨씬 많은 150여명의 나바호족 주민이 참여하는 큰 성황을 이루었다. 참여한 사람중 반이상이 아이들과 학생들이라는 점도 특기할 사항이다. 아래는 교회 페이스북에 올려진 구체적인 활동 보고의 일부이다.

#### ● 도우신 손길들

- 온교인이 참여한 \$1 이삭줍기선교헌금
- 황경희 — 48개의 backpack 과 학용품 set 기증
- 신광순 — 150명에게 다 주고도 남도록 한국과자들을 기증
- KIM's Market \_치솔 oral B 한 박스
- 박선희, 이철수 — 선교팀 모두 맥도널드에서 아침 식사 대접 감동상 받아야 할 만큼 — 몸이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머리 깎을때 앓는 미용의자를 선교지까지 차에 실어서 가져오심
- 황경희, 박선희집사님 — 헤어 컷 42명을 하시느라 시간이 없어서 점심 식사도 못하셨습니다.
- 말씀 전해주심 — 이명길목사
- David Latham — 주민들 ride service
- 건강책임 받은 사람 50명 — 김안숙, 윤태자 간호사님
- 찬양팀 — 전도사님, 한지혜, 리나라(인디언 여대생) 안은영
- 주방팀 — 언제나 이름도 빛도없이 진짜 봉사하신 서순분, 한은영, 조예진
- 안내 — 유금님, 심강희, 이성숙사모님
- 각 테이블 마다 조장을 세워, 주민들을 상담하고 기도제목을 받아서 중보 기도와 교제로 이어감
- 아이들을 위해 48 세트의 백팩에 크래용, 연필, 지우개, 공책, 물품등의 학용품을 채워서 황경희집사님께서 기증해주셨는데 수요를 채우질 못했다. 백팩을 원하는 44명의 학생들의 신청을 받고 부족했던 백팩을 마련하여 가을학기 시작 전에 세디 교우를 통해 보내었다.









# 창립 36주년을 맞이하면서

-9월 9일 주일 오전 11시에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로 초청합니다-

**김기천**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엣그제 경찰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문이 열려서 교회에 들어는 왔는데 나갈 수가 없다고 하면서 문을 열어달라는 전화였습니다. 그 시간 집에 있던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교회 카메라를 연결하였습니다. 경찰 차 두 대가 교회 주차장에 있는 것이 보였지요. 두 차 모두 정문 입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저는 핸드폰에 있는 앱을 사용하여 교회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경찰차들이 문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핸드폰에 영상으로 보였습니다. 얼마 안 있어 경찰로부터 교회 주차장에서 나왔다며 감사하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14년 전 제가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에 처음 왔을 때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입니다. 당시에는 교회 정문은 커녕 담장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보안용 카메라도 없었지요. 교회 건물 옆에는 놀이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과 뒤쪽은 빈터로 남아있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교회로 들어오는 길 입구부터가 공터였지요. 넓은 공터 위에 교회 건물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교회 건물 뒤쪽에 붙어있는 외등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밤에 건물 뒤쪽이 캄캄했습니다. 워낙 높이 달려있는 외등이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보았습니다. 살펴보니 불량배들이 교회 뒤쪽으로 돌아와 BB gun으로 전구를 깨뜨려 놓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전구를 바꾸고 깨뜨리지 못하도록 철망을 씌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한 때는 새벽 예배만 끝나면 교회 주차장에 외부 차량이 주차되어 있곤 했습니다. 며칠 동안 주차되어 있다가 없어지면 또 다른 차가 주차되곤 했지요. 나중에 경찰을 통해서 들었던 사실은 차 도둑들이 교회 주차장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차를 훔쳐서 교회 주차장에 두면 나중에 그 도둑과 연계된 다른 사람들이 그 차를 가지고 간다는 것이었지요. 모두 지나간 옛날이야기들입니다. 지금은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하

시면 와 보시면 압니다. 올해로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는 창립한 지 36주년을 맞이합니다. 벌써 교회가 세워진지 36년이란 시간이 지났지요. 지난 36년 동안 교회는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양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내적으로도 꽤나 성숙해졌습니다. 물론 앞으로 갈 길은 멀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묵묵히 따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분명히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9월 9일을 “구구절”이라고 부르며 특별한 날로 지정해서 지키고 있지요. 그날이 북한 정권 창건일이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는 9월 9일은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36주년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의 “구구절”은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매년 해왔던 것처럼 올해도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초청하고 지역 주민들을 초청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오셔서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가 아름답게 변한 모습들을 보시고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올해 창립 36주년을 맞이하면서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의 변화와 성장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향력이 알버커키 지역만 아니라 뉴멕시코 지역, 미 전지역까지 확장되기를 기도합니다.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느라 지금까지 헌신해 오신 교우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

**Mi Kyong Kim**  
Mortgage Banker  
NMLS #512561

 **BANK OF ALBUQUERQUE**  
MORTGAGE

3900 Vassar Dr NE  
Albuquerque, New Mexico 87107  
www.bankofalbuquerque.com/mikyongkim  
E-Mail mkim@bokf.com  
Direct 505.855.0586  
Mobile 505.379.2944  
Fax 505.855.7301



**김미경**  
주택융자를  
도와드리겠습니다



一番  
**Ichiban**  
Japanese Restaurant

10701 Corrales Rd NW,  
Albuquerque, NM 87114  
(505) 899-0095

11:00am to 2:30pm (Mon-Sat) for Lunch  
4:30pm to 9:00pm (Sun-Thur) for Dinner  
to 10:00pm on Friday & Saturday



## 한국학교

## 뉴멕시코 한국학교 소식

안녕하세요. 뉴멕시코 한국학교입니다. 어느새 무더운 여름이 물러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문턱에 섰습니다. 한국학교에서는 여름방학의 끝을 '삼국을 통일한 신라'라는 주제의 캠프로 마무리 했습니다. 사실, '신라'라는 고대 국가에 대한 내용은 아이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기에는 어렵고 너무 깊은 학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지만, 선생님들과 함께 백제와 고구려를 통합해 통일하고 우수한 문화를 발전시킨 신라의 이야기는 미국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새로운 문화를 선보이기에 아주 좋은 주제라 판단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캠프를 위해서 동포재단에서 후원(\$1,200)을 받아 아이들과 신라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과 만들기, 야외놀이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캠프에서도 북아트(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을 스스로 편집하고 그림을 그리거나 오려 붙이는 등의 문학과 아트의 혼합활동) 만들기를 통해 신라를 세운 주몽이야기, 화랑도, 김유신, 그리고 통일 신라의 문화 등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건빵으로 침성대도 만들고 다함께 단체화도 완성하여 자기가 만든 침성대 금관을 쓰고 멋진 사진도 찍었습니다.

캠프를 위해 한인회의 한국학교 담당이신 민부회장님께서 매일 오셔서 교사진들을 격려해주시며 다양한 간식과 여기저기 필요한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주셨고 윤태자 수석 부회장님께서도 넓은

박영신  
한국학교 교장



집과 마당을 오픈하셔서 아이들에게 야외에서 노는 즐거움과 함께 학부모님들도 모두 초대하셔서 다함께 힐링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인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캠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더없이 즐겁고 보람있는 캠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늘 신경써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지역사회에 감사드리며 아이들을 위해 보다 나은 프로그램과 열정을 쏟는 것이 저희 학교 교사진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학기도 시작한 지 어느새 2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4세 어린이 반이 개설되었고 성인 신규반에는 특별히 한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UNM의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자라는 꿈나무인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인의 자부심을 갖고 자랄 수 있길 기대하며 또 한국학교가 이 앨버커키에서 한국문화를 알리고 한국어의 우수성을 알리는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





# 농주



**이정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수필가

삼십 도를 훌쩍 넘기고는 하는 더운 여름날, 노인 복지관에서 탁구 치며 땀 흘리고 돌아와 냉장고에서 막걸리를 꺼내 마신다. 목마름이 가시면서 덥던 몸도 조금은 식는다. 참 많이 변한 세상... 언제부턴가 미국 티브이에, 우리의 전통적인 술 막걸리가 유산균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몸에도 좋다는 내용으로 선전되는 것을 보고 한국 식품점에서 사다 넣어둔 것이다. 그런데 맛은 어쩐지 2퍼센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준다.

들판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어 농사가 주업이던 내 고향 시골마을에는, 막걸리를 빚어 파는 조그마한 술도가가 있었다. 그러나 애경사나 명절, 어른의 생일이나 제사, 그리고 바쁜 농사철 일꾼들을 대접하는 데 쓸 술은 반드시 집에서 빚었다. 누룩을 미리 만들어 두고 필요할 때마다 썼다. 바심하여 말린 밀을 맷돌로 곱게 갈아 반죽한 다음 덩이를 진다. 지푸라기로 대강 엮어서 불기가 들어가는 따뜻한 방에 걸어 두고 띄워, 곰팡이가 골고루 피면 잘 말려서 보관한다.

고두밥을 찌 식힌다. 누룩 가루를 고두밥과 고르게 섞어 조그마한 항아리에 넣는다. 끓인 뒤 식힌 미지근한 물을 알맞게 부어 구들방 아랫쪽 따뜻한 곳에 앉히고, 헌 이불로 싼다. 시간이 가면 발효되어 술술 술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잘 익으면 너무 독하지 않게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체에 받친다. 오래 전부터 내려오던 전통 술 농주였던 것이다. 안주로는 두부나 미나리김치 아니면 된장에 푼고추가 제 격이다. 새참에 반드시 따라가던 농주는 일꾼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면서 피곤을 덜어주는 아주 좋은 먹을거리였다.

상머슴을 두고 품앗이로 농사 짓던 때, 어린 나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 막걸리로 술을 배웠다. 대학생 때는 형편에 따르느라 싼 술집에서 찌그러진 양은 주전자에 들어있는 막걸리를 양은 사발에 따라 들이키고는 했다. 주말이면 산에 오르던 때는, 힘든 산행을 마치면 일행과 함께 막걸리집에 들어 그 집의 술을 동 내기가 일쑤였다. 포도주 맛을 알아 그 맛을 사랑하려면 반드시 포도나무들 곁에서 태어나 자라고 살아왔어야 한다던가. 나는 막걸리의 맛을 알고 막걸리를 사랑한 사람 중의 하나다.

술꾼은 입을 지나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술을 의식한다. 이어 나타나는 신체의 변화도 낱낱이 깨닫는다. 얼큰하게 취하면 말이 많아지기도 하지만 대범해져서,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고 근심 걱정도 없어진다. 유학 시절에, 술만 마시면 내 영어가 한결 나아진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 약간 취기가 오른 그 미혼微醺의 경지를 즐기려고, 진짜 술꾼은 술을 천천히 조금씩 마신다. 막걸리는 돗수가 낮아 취기가 살짝 도는 상태를 즐기기에 알맞은 술이다. 하지만 자칫 많이 마시면, 점점 흐려지는 의식 속에 사지가

제멋대로 움직이고 혀가 꼬여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서 곤죽이 되어버린다.

젊었을 적에는, 누가 술이나 한잔 하자고 부르면 나에게 관심이 있고 정이 있다는 말로 들려 제백사하고 나가고는 했다. 취기가 살짝 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기 양양해지고 자신이 생겨 말이 많아진다. 그런 자리에서 가부좌하고 윗몸을 가볍게 흔들면서, 재미나는 얘기를 듣고 웃는 일보다 더 즐거운 일이 또 있던가. 그런데 문제는 그때마다 번번이 대취하는 내 술버릇이었다. 다음 날 숙취에 시달리면 술을 아주 끊고 지내다가도, 언제 그랬느냐는 듯 또 취하고는 했다. 주정을 부리지 않았던 것만도 다행이었달까. 무섭기만하던 아버지 밑에서 배웠기에 술버릇이 나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진짜 술꾼은 못 되었던가 보다. 그때마다 아내는 내가 술 마실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싫은 소리를 해댔다.

나이와 함께 변해버린 입맛 때문만은 아닐 터이고, 누룩으로 빚어 시큼하면서도 텁텁하던 농주를 다시 맛볼 수는 없을까. 손끝이 여물다는 평을 받던 어머니가, 술이 익으면 술독에 용수를 박고 떠내어 광 안 쌀독 틈에 두었다가 맛보게 해주던 맑은 술을 다시 즐길 수는 없을까. 세월 가고 어머니도 가신 훗날, 지리산 청학동과 남해 보리암에서 바로 그 맑은 술 맛이 나는 약주를 만났는데, 맛에 홀려 별걱별걱 들이키다가 두 번 다 딱이 되었던 기억이 새롭다. 술지게미는 쌀뜨물과 섞어 돼지에게 먹이고, 시어진 막걸리로는 식초를 만드시던 어머니도 생각이 난다. 집안의 그런 모든 일은 어머니의 몫이었던 것이다. ■



## “어찌 찬양 안 할까!”

-나바호 선교 후기-



박선희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집사

재능 기부나 한번 해볼까? 우리 교회 선교팀이 2차 나바호 선교 방문을 하러 간다고 한다. 미용 기술로 이제껏 잘 먹고 살았는데. 이 기회에 재능 기부나 한번 해볼까? 그곳은 어떤 곳일까?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살기가 힘든 곳이라는데...

막연한 생각으로 당일 새벽에 남편을 깨워 선교팀과 교회에서 합류하고 길을 떠났다. 2시간 반이라는 거리라기에 남편과 오랜만에 드라이브도 할 수 있는 오붓한 시간을 가지겠구나 하며 우리 둘은 그저 좋아만 했다. 가는 길은 구글맵에 찍힌 거리와는 사뭇 달랐다. 세 시간 반이 넘는 시간이었다. 나름 부푼 가슴을 안고 선교하러 가는데... 가는 길은 의외로 길었다. 세 시간 반의 가는 길은 나름대로 아름다웠고 여기저기 자연으로 인해 돌탑 쌓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큰 바위, 작은 바위..... 얼마 전 TV에서 본 중동 사막이 생각났다. 사막은 꼭 모래만 있다고 사막은 아니란다. 그런 곳을 우린 계속 달렸다. 트럭과 차 모두 5대가 갔는데 어느새 일행들과는 거리가 멀어졌고 중간에 보였던 이명길 목사님 차량도 없어졌다. 후에 들은 사실, 길을 잘못 들어 30분 지체되었단다.

어느새 목적지가 보였고 다행히 데이빗 집사님과 거의 같이 도착해 집사님의 인도로 나바호 Community Center로 들어왔다. 짐을 풀고 들어간 센터 안에는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분들이 계셨다. 들어가는 순간 나와 남편은 가슴이 벅찼고 우리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겠구나 하는 가슴 뜨거운 무엇인가가 마음에서 우러나왔다. 아~ 근데 무엇을 먼저 하지? 그러고 있는 동안 선교팀은 여기저기에서 환영팀과 보건팀, 주방팀, 찬양팀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물건들을 정리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주민들이 몰리기 시작하자 시장에 있는 것처럼 정신이 없었다.

나도 남편의 도움으로 스테이션을 경희 집사님과 함께 만들었다, 마음은 많이 떨리고 긴장이 됐다. 과연, 내가 머리를

깎으면서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옆에서 머리를 하고 계시는 경희 집사는 꼬마들과 학생들에게 “Do you know Jesus?” 하며 말을 붙였다. 그래 나도 시작하자... 머리를 하면서 너무 더운 탓에 내 몸은 정말 드라이 사우나에 있는 것 같았다. 지난주부터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장염이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컨디션이 썩 좋진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전혀 아무렇지 않았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보고 어서 빨리 일을 하라 하시나 보다 하고 쑥스러움을 뒤로하고 한 꼬마 아가씨에게 “Jesus Loves You!”라고 했다. 살짝 기분이 묘하고 이상했다. 꼬마 아가씨는 웃으면서 그 예쁜 눈을 나에게 보이며 “OK!” 했다. 너무나도 귀엽고 사랑스러웠다. 내 눈에도 이리 예쁜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예쁠까! 그러는 사이에 눈을 들어보니 정말 여기저기서 선교팀의 활약은 너무도 아름다웠다.



간호사로 계시는 김성숙 사모님, 김안숙 권사님, 윤태자 집사님. 혈압과 당뇨를 Check 하시고 또 그분들의 아픔과 고충을 들으시며 손도 만져주시는 모습을 봤다. 찬양팀은 한승우 전도사님과 따님 지혜와 지혜친구 리나 그리고 안은영 집사님이 찬양을 부르고 앞에서는 심강희 집사님, 조예진 자매님, 이성숙 사모님 등이 Visitor Name Sheet을 작성하고 보건과 헤어로 나누어 명단을 적고 있었다. 부엌에선 170인분의 음식을 데우고 계시는 사모님, 목사님, 서순분 집사님, 한승우, 한은영 전도사님 다들 각자 맡은 곳에서 일하시는 모습은 너무도 아름다웠다. “예수” 그분을 알리려고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 준비하고 가진 달란트와 시간을 쪼개어 달려와 봉사하시는 우리 KUMC 가족들... 나는 이렇게 혼자 말해본다. “어찌 찬양 안 할까!” 라며...



어느 순간 한증막의 체온을 느끼며 몇십 개의 헤어컷을 하는 동안 한 아이와 임산부가 바닥을 깔어주고 있었다, “머리 깎아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아주 예쁜 웃음을 나에게 주었다 나는 다른 말 필요 없고 “Jesus Loves You”라고 했다. 눈물이 살짝 나왔다. 나도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분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 은혜가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텐데 그러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생각한 것보다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연로하신 분들부터 내 나이 정도로 보이는 사람 중에도 영어를 아주 조금만 하는 분이 있었다. 어떤 아주머니는 껌을 나가기도 어렵고 돈이 없어 그냥 머리를 기른다 했다.



시간이 조금 흘렀고 이명길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됐다.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전하려 하시는 모습은 아주 감동적이면서도 애처로워 보였다. 센터에 앉아계시는 분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얻으러만 온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가끔은 눈에 띄게 경청하는 이도 보였다. 센터 안은 덥고 정말 많은 분들로 인해 그야말로 정신이 없었다. 말씀을 전하고 난 뒤 곧바로 김 목사님의 찬양시간이었다. 담임목사님의 리드로 김기천 목사님 18번 찬양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시작됐다. 이 곡은 많은 센터에 앉아있는 이들의 엉덩이를 들썩였다. 나도 어느새 흥이 나고 옆에 앉아있는 여자 분과 손도 잡고 돌이 절친이

감사했다. 아이들은 너무도 좋아했고 어른들 또한 선교팀이 만들어간 타올과 비누 세트를 받으며 행복해 했다. 나는 잠시 어릴 때 추억이 생각났다. 내 고향 영동에도 가끔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책받침과 공책, 자 등을 나눠주곤 했다. 그때의 나는 예수님을 모르지만, 공짜 학용품과 비누 등을 얻어오면 엄마가 잘 가져왔다 하며 칭찬을 해주셨다. 후! 어릴 적 생각이 나면서 저 아이들도 지금은 아니더라도 훗날 언젠가 나처럼 예수님을 알고 믿겠지? 하며 미소를 지었다. 일기처럼 써 내려간 이글을 마무리하면서 선교지의 하루는 몸은 고됐지만 뜻 깊고 아름다운 하루였다. 조금은 부족함도 있었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눴고 어느샌가 가족처럼 따스함까지도 느껴졌다.



된 것처럼 즐거워했다. 우리들은 계속 일절만 부르면서도 너무도 행복해했다. 앞에 앉아계시는 아저씨는 말씀들을 때도 ‘아멘 아멘’ 하며 또한 역시나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계셨다. 한마디로 너무나도 모두 예뻐다.

나와 경희 집사님의 헤어컷 미션은 Non-stop이었고 그 와중에 식사하시는 주민들은 아주 깨끗이 plate를 비웠다. 식사가 마치고 주민 모두를 그룹으로 앉게 하고 선교팀들이 들어가 주민들의 기도 제목과 고충을 들어주며 중보기도에 들어갔다. 한쪽에선 우는 소리와 함께 방언이 들렸고 다들 기도해준다고 하니 본인들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주님의 선한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허락하소서. 저들에게 긍휼을 허락하소서.”

중보기도가 끝나고 가져간 물품을 주민들께 나눠드렸다. 모두 행복해하고 좋아했다. 뒤늦게 알게 된 것은 환경화 자매님이 아주 많은 책가방과 학용품을 도네이션 하셨단다. 너무도

새벽 여섯 시에 출발해서 9:45부터 시작한 봉사는 보건팀에선 50명의 주민의 건강을 점검했고 우리 헤어팀은 42명의 헤어컷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우리의 모든 미션은 3:30 만에 마쳤고 우리를 방문해 주신 나바호 주민들은 160명이 넘었다. 미션을 마친 우리는 목사님의 마무리 감사기도로 박수와 함께 마쳤다. 조금은 부족하였지만, 마음만은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알렸고, 예수님을 아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눴으니... 이 어찌 감사하리오. 그곳에 계시는 나바호 주민들과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넘치길 바라보며 이런 기쁨의 선교 사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수고하신 모든 분께 또 한 번 그대들은 “사랑”입니다 라고 불러본다. 우리가 모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다시금 깨닫고 느끼는 귀한 하루였다.

할렐루야! ■



## 기도문

## 주일 예배 대표 기도



이성빈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집사

우리 삶에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써 건져내사 다시 살게 해주셨습니다.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와 알지 못했던 삶의 목적을 다시 찾게 해주셨습니다.

구원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삶의 의미와 다시 찾은 삶의 목적을 가슴에 새기며 모두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옛사람의 죄성이 아직 우리 육체에 남아 남에게 상처 주며, 서로 정죄하며, 가식과 위선으로 살게 하며, 주님의 어린양들을 실족하게 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 매 순간을 모든 죄악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며 우리의 삶 속, 우리를 괴롭히는 죄의 본성으로부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정죄함이 아닌 그 죄의 행위로 빠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 우리 자신은 죽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놀랍고 주체 못 할 은혜에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가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모두 주님께 드리고자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시고, 저희와 함께하셔서 주님과 긴밀히 교제하며 주님의 임재 속에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기천 목사님, 주님께서 강권하시어 그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이 저희 마음속 옥토에 씨 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씨로 하여금 크나큰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힘주시고, 이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 아동부와 Youth, 대학청년부, 교회 모든 조직과 식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성도님들,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주님

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XX 권사님, XXX 권사님, XXX 집사님, XXX 집사님,

그리고 미처 호명하지 못한 몸이 아픈 성도님들, 또 마음에 상심과 근심이 있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치유의 영을 부어 주셔서, 그들의 상처와 아픈 곳이 깨끗이 치유되고 주님의 따뜻함과 포근한 품속에서 그들의 심령이 다시 채움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와 진리로 교육받아,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발 딛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나는 기름 받은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한 나바호 선교의 비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바호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주님을 향한 그들의 땀과 열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통해 주님의 구원의 경륜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주님의 길 잃은 양들에게 나누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 곳곳마다 쓰임 받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손길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마다 드러내지 않으며 섬기는 그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공간을 채워주시고, 자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그들의 일과 학업과 기업 위에 놀랍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모든 선하심과 온전하신 사랑과, 넘치는 기쁨과 모든 것에 으뜸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저희가 이 시간 뵈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18.8.12) ■



# 행복한 미국생활 #20

미주생활 가이드북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출판한 '견우와 직녀의 행복한 미국생활(부제:미주 생활 가이드북)'은 재미 동포에게 필요한 이민, 교육, 의료, 연금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본지는 연속 시리즈로 가이드북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2014년 일리노이주에서 출판된 자료임으로 2018년 뉴멕시코에서는 맞지 않는 내용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편집부)

## 4-1 자녀의 학교 입학



이견우 가정의 딸인 콩쥐와 팔쥐는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나라에서 적응을 해야 했다. 처음 이민 왔을때는 당장 살 곳을 결정해야했는데, 주거 지역을 결정하는 것도 결국은 학군을 고려해야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아이들 학교 보내는 일이 보통이 아니네요. 일단 좋은 학교에 보내야할 텐데, 그 학교 주변은 전부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요.” 직녀의 고민을 들은 견우는 생각에 잠겼다. “일단, 주택 가격이 적당하면서도 좋은 학교가 있는 지역을 알아보는 것이 최우선이겠군.”

견우 부부는 주변의 한인과 부동산 전문가들을 통해 어떤 학군이 좋으며 그곳의 주거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는 지를 조사해서 간신히 집을 구했고, 그후, 해당 학군의 교육청 (School District) 에 등록해서 입학에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구비 서류를 보니 신체 검사와 예방 접종 안내가 있던데, 콩쥐랑 팔쥐, 둘 다 이 주사는 이미 맞지 않았어?” “그러네요. 그런데 재접종을 안 하려면, 한국에서 가져 온 예방 접종 증명서가 있어야 하텐데.”

이견우 부부는 영어가 서툴렀기에, 학교 등록 과정에서 한국어 통역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등록 과정에서 학교 담당자는 콩쥐와 팔쥐, 둘 다 모두 영어가 서투르니, 또래 아이들의 반보다 한 학년 낮춰서 등록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은 수업에 뒤쳐질 염려가 없이 영어와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었다. 현재 18세인 콩쥐는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 있으며, 16세인 팔쥐는 고등학교 1학년이다.

### 전문가의 한마디 자녀의 학교 입학

미국에는 주거 지역이 어떤 학군에 속해있는가에 따라 학교가 정해집니다. 그러므로 입학하고 싶은 학교에 속해 있는 학군에 집을 구입하거나, 렌트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집을 구한 다음에는 해당 학군 교육청에서 학교 등록과 관련된 수속을 밟게 됩니다. 자녀의 나이와 교과 과정, 학교 적응 여부등의 상황을 고려해서 학년을 조정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4-2 자녀의 학교 적응



활발하고 모험심이 많은 콩쥐는 영어권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다. 수업 시간에 잘 못 알아 들은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께 다시 설명 드려 달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권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면서 팔쥐보다 영어를 더 빠르게 습득하는 듯 했다.

콩쥐는 한국계 2세인 미국인 친구와 어울렸던 반면, 팔쥐는 자신과 처지가 유사하게 한국에서 이민 온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들과 주로 어울렸다. 또한 팔쥐는 영어를 틀리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불행히도 이들이 다니는 학군에는 최근 이민 온 한국 학생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자란 한국계 미국 학생 조차도 많지 않았다. 게다가, 같은 학년에는 한국어를 하는 학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팔쥐는 입학 후 몇 년 동안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팔쥐는 쉽게 친구를 사귀지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해 가는 공쥐를 보면서 질투심을 갖게 됐다. 또한 아무도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심한 외로움을 느꼈으나, 세탁소에서 밤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부모님께 털어놓을 생각은 하지 않았다.

하루는 영어 선생님이 신변에 무슨 일이 없는지, 왜 지난 몇 주간 숙제를 해 오지 않았는지 물었다. 다그친 것도 아닌데 팔쥐는 집중하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숙제를 해야 할 동기를 느낄 수 없었다고 털어놓으며 울었다. 팔쥐의 숙내를 들은 영어 교사는 좀 더 깊은 숙내를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담 교사를 방문할 것을 권했다. 팔쥐는 한 번도 상담 교사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솔직히 상담 교사가 자신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알지 못해서 주저했다. 그러나 영어 교사가 강력히 권하자, 그 다음날 상담 교사와 만나기로 했다.

“팔쥐, 안녕? 잘 지내지? 만나서 반가워.”

“네 잘 지내요. 고맙습니다.”

“들어서 알겠지만, 난 이 학교의 상담 교사란다. 기분이 안 좋거나 누군가 이야기 할 대상이 필요한 학생들을 도와준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주렴.”

“전에 저에게 그렇게 물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뭐라 할씀 드릴지...잘 모르겠어요.”

“아 그럼, 숙제를 하지 않은 지난 몇 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줄래?”

“잠을 잘 자지 못해서 피곤했어요. 보통 학교에서 집에 오면 잠깐 눈을 붙이고 8시쯤에 일어나서 퇴근한 부모님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해요. 식사 후에는 숙제를 하는데, 피곤해서 그 날 수업 시간에 뭘 배웠는지 기억이 잘 안 나기에 온라인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밤늦게 잠이 들어버렸어요.”

“밤늦게 드라마를 봐서 잠을 못 잔것 같으니?”

“네 하지만, 자려고 노력했는데 잠이 안 올때도 밤 늦게까지 드라마를 보게 됐어요.”

“부모님께서도 네가 밤늦게까지 잠을 잘 못 자는 걸 아시니?”

“아니요, 엄마, 아빠는 다음 날 일하러 가시려면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셔야 하기 때문에 밤 10시 30분이면 잠자리에 드세요. 주중에는 거의 얼굴 보기도 쉽지 않은 셈이지요.”

“아, 그럼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니?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들과의 수다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는데 너는

어떤 걸 좋아해?”

“저는 학교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지만요... 선생님께는 누구라고 말씀드릴수 없지만 제 친구 한 명은 자해를 해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날라간대요. 저도 한 번 해 볼까 생각도 해 봤는데 겁도 나고 피를 보는 것이 싫어요.”

“팔쥐야, 그 친구가 걱정이 되니? 네가 원하면 그 친구도 도와줄 수 있어.”

“때로는 그 친구가 걱정되기도 하지만 친구를 잃고 싶지는 않아서요. 공쥐는 친구가 많아서 술도 마시고 마리화나를 피워보는 학교 파티에도 초대되곤 해요...저는 술이나 마리화나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런 파티에 한번 초대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너는 그렇게 하는 것이 멋있다고 생각하니?”

“네 그래도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팔쥐야, 여러 생각을 하고 있구나...이런 걸 매주 누군가와 이야기를 해 보는 것은 어떨까?”

“글쎄요. 꼭 그래야 되나요?”

“음, 뭔가 변화가 없으면 계속 잠을 못 잘 거고 수업에서는 뒤쳐질 것 같아 걱정이 되는 걸.”

“생각해 볼게요.”

“그러럼, 영어 선생님이 몇 주 동안 숙제를 해 오지 않아서 부모님께 연락을 할 테니 그리 알아. 나는 네가 예전처럼 돌아올 수 있도록 상담 도움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야 해요?”

“응, 어떤 이슈가 있으면 나빠지기전에 부모님에게 알리는 것이 학교 방침이야. 네게 더 스트레스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도와주고자 하는 거야. 네 부모님의 동의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거든.”

상담 교사는 팔쥐가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영어 교사, 한국어 통역과 함께 팔쥐 부모님께 전화를 했다.

상담 교사는 팔쥐가 지난 몇 주 동안 왜 숙제를 못 해 왔는지 뿐만 아니라, 외로움을 많이 타고 현재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등을 놓고 자아 형성에 있어서 고민을 하는 성장기에 있으므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부모님께 알렸다.

**<20쪽으로 계속>**



예술가의 사랑을 많이 받은

## 타오스(TAOS)

타오스(Taos)는 산타페의 북쪽에 있는 작은 도시로 고원지대의 넓은 사막같은 광야를 앞에두고 높고 푸른 산그레 데 크리스토(Sangre de Cristo)산을 뒤에 두고 있는 뉴멕시코주에서는 빼 놓을 수 없는 매력적인 도시중의 하나다. 타오스에는 인디언 마을 타오스 푸에블로(Taos Pueblo)가 있는데 이 푸에블로는 1000여년의 역사를 가졌고 지금도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로서 UNESCO 세계유산(World Heritage Site)으로도 지정된 푸에블로다. Taos 가 특별히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것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러서다. 미술가들이 매력적인 이지역의 자연에 이끌려 이주해 와서 타오스의 경치와 푸에블로 인디언을 대상으로한 작품을 많이 발표한 것으로 인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유럽과 미국에서 공부한 몇몇 서양화가들이 이주해 와서 Taos Society of Artist 란 조직을 만들었고 이들의 활동으로 타오스가 많이 소개가 되자 미술가들의 이주가 더 늘어나서 타오스에 미술가의 부락(Art Colony)이 형성되게 되었다.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미술을 좋아하는 관광객이 더 늘어나고 갤러리 또한 늘어나서 작은 산타페같은 미술의 소도시로 발전 되었다. 인구는 6천명정도에 머문 마을이라해야 될 작은 도시인데 갤러리(Gallery:화랑) 수는 80개가 넘는다. 여름철 관광 시즌이 되면 인구는 1만5천명정도로 늘어난다.

이곳에 와서 살았던 사람과 자주 다녀간 사람을 보면 여류화가 조지아 오키프(Georgia O'Keeffe), 소련태생의 화가 니코라이 페친(Nicolai Fechin), 사진 작가 안셀 애덤스(Ansel Adams), 영국의 소설가인 “차타레 부인의 사랑”을 쓴 D.H. 로렌스(Lawrence)가 있다. 최근에 타오스로 이주해 왔거나 파트타임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중에는 영화배우 줄리아 러버트(Julia Roberts), 전 국방장관 도널드 럼즈펠드(Donald Rumsfeld)등 여러 명사가 있다.



사진 1. 타오스로 가는 길. 리오 그란데 강의 상류를 끼고 간다.



이경화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장로

타오스는 알버커키에서 약 122마일 북쪽에 있다. I-25로 산타페를 향해 가다가 산타페 도심지를 피해가는 599번 도로를 이용해서 산타페를 Bypass 하고 US285/84번 도로로 Espanola까지 가서 NM68번 도로로 Taos로 향해 가면 약 10마일 정도는 리오그란데 강을 옆에 두고 가게된다.(사진 1)

에스파놀라(Espanola)를 지난뒤에 약 24마일 되는 지점에 강이 길에서 멀어지게 되는 곳, 필라(Pilar)라는 마을을 지나는데 이곳에 리오그란데 협곡 방문자센터(Rio Grande Gorge Visitor Center)가 있다. 이곳에서 타오스지역의 관광 안내 자료를 얻을수 있다. NM68번 도로로 고개를 넘으면 넓은 분지의 광야가 시야에 들어온다. 리오그란데강은 넓은 광야를 갈라 놓은 깊은 협곡으로 흐르고 있다. (사진2)



사진 2. 협곡으로 흐르는 리오 그란데강

Taos에서 남쪽 3마일 되는곳의 NM518도로와 만나는곳에 란초스테타오스(Ranchos de Taos)란 마을을 지나는데 이곳에는 유명한 산프란시스코 데 아시스교회(San Francisco de Asis Church)가 있다. 많은 화가와 사진작가들에 의해서 널리 알려진 교회다.(사진 3) 1710년에 세워진 어도비건물이다. 여기서 1 마일정도 더 타오스쪽으로 들어가면 Paseo del Canon과 68 번 도로가 만나는 코너에 방문객센터(Visitor Center)가 나온다. 타오스의 Chamber of Commerce에서 운영하는 이 안내소에서는 타오스의 호텔, 식당, 쇼핑등 폭 넓은 관광안내자료를 얻을 수 있다. (www.taoschamber.com) 마을의 중심지가 되는 타오스플라자(Taos Plaza)는 여기서 2마일 더 가서 64번 도로와 68번 도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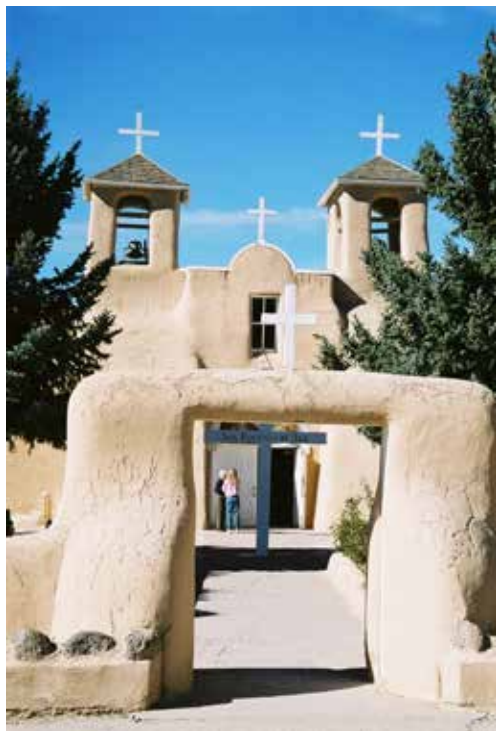


사진 3. San Francisco de Asis Church.



사진 4. 타오스 플라자에 있는 라 폰다 호텔.

당했다는 사실 때문에 여행객의 관심거리가 되기도한다.(전화 (575)758-2211 [www.lafondataos.com](http://www.lafondataos.com)) 플라자에는 Veterans Memorial 비석과 동상이 있고 서쪽에 있는 팔각정같은 Gazebo에서는 여름철 매주 목요일 오후 6시-8시에 시민과 여행자를 위한 음악공연이 있다. 플라자에서 북쪽 지역으로 들어가면 갤러리와 식당이 많이 모여 있다.



사진 5. 타오스 푸에블로 (Taos Pueblo)

만나는 지점 옆에 있다.

Taos 방문자에게 추천하는 명소를 아래에 소개키로한다.

## 1. 타오스 플라자 (Taos Plaza)

다운타운(Downtown)의 중심이 되는 플라자(Plaza)는 처음 오는 방문객이 반드시 둘러 볼만한 곳이다. 선물상가로 둘러 싸여진 이 지역은 관광객이 가장 많이 붐비는 곳이다. 1796년 스페인왕의 명으로 이곳 주민에게 무상 토지불하를 하여 지금의 플라자 땅에 사각형의 형태로 집을 짓고 스페인 사람들이 집단으로 살기 시작했는데 1930년경에 이르러 오늘의 플라자와 같은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

플라자 북쪽편에는 옛날 재판소로 썼던 건물, Old County Courthouse가 있다. 지금은 아래층이 상가로 쓰이고 있으나 2층에는 1935년에 네사람의 화가에 의해 그린 벽화(Murals)가 보존되어 있다. 1995년 벽화는 다시 복원작업을 해서 지금도 관광객이 많이 들르는 자리가 되고 있다.

플라자 남쪽편에는 역사깊은 라폰다(La Fonda)호텔이 있다. 이곳에 상점 건물이 1820년대 부터 자리 잡고 있었는데 1880년 컬럼비안 호텔로 운영되다가 1937년 대폭 수리를 겸해 증축되면서 지금의 호텔이름 Hotel La Fonda de Taos를 갖게되었다. 2002년 오래된 내부 시설을 3년반에 걸쳐 대폭 수리와 개조를 끝내어서 옛날의 건축물이지만 내부시설은 현대적인 새것으로 바꾸어 새롭게 되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면 스페인식으로 설계된 내부의 건축미를 볼 수 있다. 로비와 입구의 벽은 이지역의 화가들의 작품으로 장식되어 있어 갤러리에 들어선것 같은 느낌을 갖게한다. 이 호텔에는 영국의 소설가 D.H. 로렌스(Lawrence)가 그린 그림을 보관하고 있는데 예술적 가치 보다는 1928년 영국 런던에서 전시하다가 추한그림으로 지적당해 압수되었다가 영국에서 추방

## 2. 타오스 푸에블로 (Taos Pueblo)

천년 넘게 살아온 타오스 인디언의 마을이다. 다운타운에서 북쪽 2마일 떨어진 거리에 있다. 2층에서 5층에 이르는 어도비(Adobe) 건축물이 시선을 끈다.

인디언 건물 중에서 이 건물만큼 화가에 의해 많이 그려지고 사진 작가에 의해 많이 찍혀진 건물은 없을것이다. 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미국역사기념물(National Historic Landmark)로도 지정된 건물이다. 현대 건물의 필수인 수도와 전기를 지금도 거부하고 옛것을 보존하고 있는 이 어도비 흙벽돌 건물에 지금도 약 150명의 주민이 상주하고 있다. Taos Pueblo에 속한 인디언의 인구는 1900명이여서 대부분의 주민은 마을 밖 인디언 보호구역내에서 현대식 주택을 짓고 살고 있지만 전통을 보존 하기위해 어도비 건물안의 집을 하나는 소유하고 명절과 종교 예식이 있을 때만 푸에블로(Pueblo)에 있는 집에 와서 이용하는





사진 6. Harwood Museum of Art. 뉴멕시코 대학 (UNM)에 속한 미술 박물관이다.



사진 7. 인디언 천막 티피(Teepee)

사람도 많다고 한다. 연간1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 간다고 한다. 3월과 4월 사이에는 그들의 종교행사로 약 6주간 관광객이 들어갈 수 없다. 상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www.taospueblo.com 전화 (575)758-1028 ) 입장료:\$16.00 (사진 5.)

7)를 매블의 집앞에 새워 놓고 매일 저녁이 되면 북을 두드리면서 구혼을 청했다. 1923년 결혼하여 1962년 사망할때까지 함께 40년을 살면서 루한 내외는 무수히 많은 예술가를 초청해서 그의 집에 머물게 하고 타오스로 이주해오는 예술가들을 돕고 후원했다.

### 3. Harwood Museum of Art

Plaza에서 남쪽으로 걸어가면 Ledoux Street가 나온다. 좁은 길이어서 일방통행만 된다. 갤러리와 옛날 화가들이 살던 집들이 많이 나온다. 나바호 인디언의 대표적 화가인 R.C. 골만 (Gorman)의 갤러리가 있고 1898년 타오스근처에서 마차 바퀴가 망가져 타오스에 와서 수리하는 동안 타오스에 반해서 이곳으로 이주했다고 전하는 애기의 주인공 블루맨샤인(Blumenshein) 화가가 살던 집도 있다. Ledoux 길의 끝부분에 이르면 미술박물관 Harwood Museum of Art가 나온다.(사진 6) 이 건물은 1920년경 Harwood부부가 살던 집이었는데 이 지역의 도서관으로 이용하도록 집을 내어 놓았다가 미술계를 위해서 이용되길 바라는 소원에 따라 뉴멕시코대학(University of New Mexico)에 기증되어 UNM에서 관리하는 미술 박물관이 되었다. 그 까닭에 UNM학생들은 입장료가 면제된다. 1910년대의 미술, 조각, 사진작품들을 포함해서 현대 미술도 많이 전시한다. 입장료:성인 \$10.00 일요일에 한해서 New Mexico주민에게는 무료. (www.harwoodmuseum.org/)



사진 8. 매블 다지 루한의 집

### 4. Mabel Dodge Luhan House

1900년도 초기 타오스에 많은 예술가가 모여 살게되고 또 미국 전역에 타오스가 널리 소개된것은 아마도 매블 다지 루한(Mabel Dodge Luhan)이란 여인이 타오스에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뉴욕의 부유한 은행가의 딸이였고 여류작가 이면서 이탈리아 프로렌스에서 살았고 뉴욕에 돌아와서 그의 살롱(Salon)을 통해서 많은 저명인사와 교류하면서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일을 많이했다. 1919년 타오스로 이주해와서 집과 토지를 매입했는데 이때 타오스 인디언인 토니 루한(Tony Luhan)을 알게된다. 토니는 인디언 천막 티피(Teepee 사진

이곳을 다녀간 예술인들중에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사람이 많다. 예를 들면 영국 작가로 D.H. 로렌스, 올더스 헉슬리, 스위스 심리학자 칼 융, 화가로는 조지아 오키프, 니코라이 페친, 사진작가 로는 안셀 애덤스등이 있다. 1991년 매블이 살던 이 집은 미국역사기념물(National Historic Landmark)로 지정되었고 일반에게 공개되며 여관(Bed & Breakfast Inn)으로 쓰이고 있다. Plaza에서 동쪽, Morada Ln 좁은 길 끝에 있다. Ph. 800.846.2235 (www.mabeldodgeluhan.com/) (사진 8)

### 5. Rio Grande Gorge Bridge

타오스 서쪽의 넓은 평지로된 분지, 중앙을 잘라 버린듯한 리오 그란데 협곡 (Gorge)은 콜로라도주 까지 이어진다. 이 협곡을 가로 질러 철근 다리를 1965년에 건설했다. 미국에서 일곱번째로



사진 9. Rio Grande Gorge Bridge

높은 다리이다. 다리 서쪽편에 피크닉 그라운드와 있다. 다리위에서 내려다 보는 협곡과 그 사이로 흐르는 리오그란데강 경치가 장관이다. Taos에서 64번 도로로 서북쪽으로 약10마일 정도 가면 그곳에 이른다. (사진 9)

## 6. 경치좋은 순환 도로(Enchanted Circle)

타오스 주변 관광으로 타오스 북쪽을 한바퀴 도는 순환 드라이브 코스가 있다. 매력있는 관광 코스라고해서 Enchanted Circle이란 별명이 붙었다.

뉴멕시코주에서 제일 높은산이 Wheeler Peak(13,161ft) 산인데 타오스북쪽에 있다. Enchanted Circle이란 곧 이 산을 중심으로 한바퀴 도는 코스가 되는데 뉴멕시코주에서 가장 매력적인 코스가 될것 같다. 타오스에서 64번 도로로 북으로 나와 522번 도로로 바꾸어 가면 마일 포스터 10마일지난 지점에는 "University of New Mexico, D.H. Lawrence Ranch"라고 쓴 간판이 나온다. 비포장 도로로 6마일 들어가면 로렌스기념소(Lawrence Memorial)가 있다. 이곳에는 케빈과 집회를 할 수 있는 시설도 있어서 교회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도 한 적이 있으나 지금은 운영을 중단했고 방문시간도 목, 금,토요일로 제한되어 방문자는 반드시 시간을 확인하고 갈것을 권한다. (전화 (575)776-2245)

522번 도로는 Questa 마을에서 38번 도로를 만난다. 이 길로 들어서면 울창한 숲과 맑은 개울물을 끼고 가다가 스키로 이름난 Red River란 마을에 이른다. 이어 넓은 초원지대를 지나고 Eagle Nest호수를 지나고 64번 도로로 Taos로 들어오는 Enchanted Circle 전체거리는 86마일이 된다. 중간에 스키로 이름난 Angel Fire도 둘러 볼 수도 있다.

이와는 별도로 한바퀴 도는 대신 Wheeler Peak 산이 있는 중심으로 들어가 볼 수도 있다. 522번 도로대신 150번 도로로 가면 타오스 스키장으로 가게 된다. 겨울에는 스키를 즐기는 사람으로 붐비고 겨울이 아닌 때는 등산객이 많이 찾아온다. 스키장에서 올라가는 하이킹 코스중에 11,000ft 고지에 있는 Williams Lake(사진 10)로 가는 등산길은 가족이 함께가기에 좋은 코스다(왕복 4마일). 뉴멕시코주에서 가장 높은산인 Wheeler Peak도 이 곳 스키장 근처에서 올라 갈 수 있다.

## 자녀의 학교 적응 <16쪽에서 계속>

한편, 상담 교사는 대화를 통해 견우와 직녀가 미국의 고등학교 문화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한국어로 제공되는 "부모 교육 수업"을 받아보라고 권했다. 부모 교육 수업은 "침대의 약물 사용", "자녀의 우울증, 불안증세를 감지하는 법", "침대 자녀의 훈육과 건강 관리 지침을 세우는 법", "침대와 의 효율적인 의사소통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견우와 직녀 부부는 한국어 사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상담 교사는 팔쥐와 부모님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문의하기 위해 한인 사회복지기관에 연락할 것을 조언했고, 견우와 직녀는 그 조언을 통해 부모 교육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 전문가의 한마디

### 자녀의 학교 적응

한참 예민한 나이에 부모님을 따라 이민을 온 자녀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부모님과 대화의 중요하지만, 때때로 함께 대화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는 이러한 문제를 같이 이야기 할 수 있는 상담 교사가 학생의 학교 생활 적응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이민 온 학생이 많은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상담 교사가 학생들의 문제를 돕기도 하니, 각 학교의 상담실에 문의해 부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마련된 "부모 교육 세미나"는 여러 부분에서 부모와 자녀의 의사 소통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각 사회복지 기관에서 제공되는 교육프로그램을 알아보세요. ■

타오스를 방문해 보면 왜 옛날 화가나 작가, 예술인들이 이곳을 왜 좋아했는지를 실감하게 된다. 뉴멕시코주의 별명인 <매혹의 땅>이란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이 바로 타오스이다. ■



사진 10. Williams Lake



수필

# 과학기술은 끝 없이 발전하고 있다

김준호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장로



2018년 8월 12일 새벽에 Florida Cape Canaveral에서 NASA 연구원들이 창안해 만든 Parker Solar Probe 를 태양을 향해 발사해서 또 한 번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Probe 는 현재 태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의문점들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비책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은 이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감히 시도해 보고 싶지 않는 공상 소설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입을 딱 벌리고 말을 못 합니다. 어떤 자는 미국이 미쳤나?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지구상의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어째서 수억 만리 떨어져 있는 태양을 들먹이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도전적인 비밀을 탐구하는 것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재정 뒤 바침이 안 됩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현재 여러 국가에서 원자핵 융합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핵융합 작용이 태양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 지구상 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연구가 미국 California에 있는 리버모어 연구소에서 Nova project 하고 해서 핵융합 연구를 시작했는데 몇 년 동안 큰 진전이 없었다고 합니다. 의회에서는 연구소에서 돈만 낭비한다고 연구비를 삭감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소에서 연구 제목을 National Ignition Facility 라고 바꾸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데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가지게 되어 다른 나라들도 이 연구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192개의 Powerful YAG laser beam 들을 target 에 nano second에 동시에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YAG Laser 두 개를 동시에 한 표적에 마치는 것도 힘든 과제인데 192 개의 laser beam을 한 목표 판에 마치기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연구소는 성공했습니다.

이 Parker Solar Probe Project는 미국만을 위한 연구가 아니고 전 인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 결과는 모든 나라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알듯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흠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브를 창조했다고 창세기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창조물 중에서 제일 귀중하게 창조한 창조물은 두말할 것 없이 우리 인간 들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경고했는데 이브가 먼저 따 먹은 후에 남편 아담에게 권해서 따 먹고 에덴동산에서 둘 다 쫓겨났지요. 만약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었더라면 이브만 죽고

아담은 흠 아비로 살지 않았겠느냐는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 아담이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담이 큰 실수는 했지만, 부인을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고백 했던 처지라 잘했다고 여겨집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매일 보고 사는 태양이 무엇이 대수롭다고 그 비밀을 찾으려고 이 야단들이냐고 말할 것입니다. 수억 멀리 떨어져 있는 태양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많은 자금을 투입해서 연구에 힘쓰는지 보통 사람인 우리에게는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우선 태양과 지구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태양의 크기가 바스켓볼 만 하다면 지구는 콩알보다 더 작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에서 흑점 ( sunspot ) 활동이 있다는 사실을 찾아냈고 그 주기가 딱 고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략 11년을 주기로 많아졌다 적어졌다 한다고 합니다. 흑점이 많아지면 전자파의 강도가 커져서 지구 안의 무선통신에 교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온층의 밀도가 바뀌어서 UV 광선이 더 많이 지구 표면으로 침투해서 피부암이나 다른 피부병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쏘아 올린 Parker Solar Probe 도 태양의 신비한 것들을 찾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태양은 지구와 전연 다른 구성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수소 ( Hydrogen ) 가 74% Helium 24%, 산소가 1% 정도 다른 원소들이 거의 1% 라고 합니다. 수소는 모든 원소 중에서 제일 가벼운 원소이고 Helium 은 두 번 째로 가벼운 원소입니다. 이렇게 가벼운 두 물질이 어떻게 뽕뽕 뭉쳐서 뽕뽕이 흩어지지 않고 핵융합 작용을 쉬지 않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주 과학자들이 해답을 찾으려고 열심히 연구하는 중입니다. 우리들이 추측하기는 인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방으로 분산되지 않고 핵융합작용도 되고 높은 온도를 유지하며 또 햇빛도 발산한다고 봅니다.

이번 Mission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Corona 는 태양 대기권의 외각층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Solar wind 라든가 강한 Particle wind가 지구의 전력 System을 파괴 할 수 있지 않으나 하며 염려하고 있습니다. 태양 표면에는 자장 ( Magnetic field ) 이 있어서 다양한 실 쫓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한가지 잘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은 Corona 의 온도가 태양 자체의 온도보다 몇100 배 높다 는 것입니다.

Parker Solar Probe 가 어떤 해답을 전해 줄지 지켜보게 됩니다. 1958년에 시카고 대학에서 연구하시던 Eugen Parker 교수님은 태양에 Solar wind가 있고 Stream of charged particle이 계속 방출되어 Solar system 전역으로 확산한다고 발표했는데 처음에는 여러 태양 전문가들이 의심했었는데 Solar wind가 정말 있다는 사실이 1962년 Mariner 2 mission으로 교수님의 발표했던 것이 사실로 증명되면서 태양 연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Probe를 발사하기 전에 그분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여 그분의 이름을 붙여 Parker Solar Probe 라고 명명하였고 이번 발사 장면을 직접 목격 하시도록 주선했습니다. 그분의 연세는 91 세인데 아직도 정정하신 듯하며 크게 경하드립니다. 어느 태양 연구원은 Parker 교수님은 태양 연구의 아버지라고 극찬했습니다. 이렇게 태양연구에 활기가 가속됨에 따라 엄청난 온도에 견딜수 있는 방열재료도 개발되어서 Parker Solar Probe 에 사용되었고 앞으로 7년 동안 태양의 여러 비밀을 하나하나 알아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저의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A.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은 공보부 시설과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직책은 정부에서 대북 단파 방송을 하는데 출력이 500 KW이어서 남양 송신소 안테나 근방의 전자파의 강도를 재서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No Problem !!!

B. 그 후에 원자력 연구소 전자공학실로 전직하고 거기서 transistor 와 diode를 한국에서는 최초로 개발하고 그 성능을 측정하여 전자공학회지에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남산에 방송국 송신안테나를 제작해 설치하고 부산에도 영도에 송신 안테나를 세웠는데 바다 쪽으로 방송 전파가 빠져나가지 않게 특수 안테나를 설계하고 제작해서 설치하고 모든 결과를 또 전자공학회지에 발표하였습니다.

C. 1967 년 말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 나성에 유학생으로 와서 TRW Semiconductor에 취직을 해서 거기서 2 GHz transistor 를 개발했던 것을 어떻게 Amplifier로 사용하는지 Strip line amplifier 회로를 만든다고 연구 proposal을 냈는데 진전이 전연 없어서 큰 골칫덩어리로 공공거리는 것을 제가 Microwave theory 를 대학 다닐 때 택했던 지식을 응용하여 3주 만에 제작해서 그 부서에 큰 공을 세웠었습니다. 그 후에 그 부서 직원들 모두가 저를 얼마나 후대하였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저는 학생으로 USC에 등록하고 공부하며 계속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낮에 수업시간이 많아서 도저히 40 시간 일을 할 수 없었지만, Department manager 는 저의 공을 보답한다고 늘 40시간 일했다고 서명을 해 주었습니다. 더 기뻐했던 사실은 제가 학교에서 B 학점 이상을 받으면 학비를 TRW 에서 내 준다고 약속도 해 주었습니다.

D. USC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뉴욕주 스키텍타디에 있는 General Electric 중앙 연구소에 취직이 되어 갔는데 이 연구소가 갖은 풀기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가 그 당시 허드슨강으로 막 폐기하던 대형 Transformer oil을 Dump 못하게 EPA가 막은 것을 환경부가 OK 하는 새 Transformer oil을 개발해서 사용하게 했습니다.

E. 그 후에 알버커키에 있는 CVI Laser Corp.에 취직이 되어 이곳에 와서 25년간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동안 전세계에 많은 과학자들이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는데 이 세상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 주면서 저 나를 대로 새로운 개발품들을 많이 개발 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열 개 가 넘는데 그중에 몇 개만 소개합니다.

E-1 ) Waveplate 개발 .

E-2 ) Kim polarizer (KPBC) 개발. 이 Polarizer 는 Calcite polarizer와 같이 Extinction ratio가 10,000분의 1 이 되는 것으로 Calcite polarizer의 약점인 Damage threshold 가 아주 낮은 것을 보완하는 High power application에 사용 할 수 있고 Calcite polarizer의 두 번째 약점인 Clear aperture 가 작은 것을 크게 만들 수 있는 Kim polarizer는 1인치에서 3 인치 까지 Clear aperture를 가질 수 있게 창안 한 것이었습니다.

E-3 ) TFPK 개발. 이것은 Broadband Low Dispersion Polarizing Beamsplitter입니다. 이 TFPK는 Low group velocity dispersion이 되어서 Ultrashort femtosecond laser system에 아주 적합한 것입니다.

E-4 ) Quadruple V AR Coating 개발. ( 1064/532/355/266 nm AR coating ). 요새 시중에 판매되는 Coating design program 은 그저 이론적인 것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지만 CVI 에서 제가 사용하던 program은 판매용이 아니고 Home made로 우리가 매일 coating 할 때 절대로 필요한 Parameter 들을 잘 알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참으로 유용하게 새로운 Coating design 들을 많이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Quadruple V AR coating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이 밖에도 Super wide band BBAR design도 만들었지요.

E-5) 현재 시중에 팔리는 모든 Calcite polarizer는 S polarization exit beam 이 120~170도로 나가는데 IBM 연구소의 어떤 연구원이 90 도로 Beam이 나가도록 만들어 달라고 때를? 써서 우리도 개발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린다고 했더니 자기네가 제작하는 계기가 90도로 Beam이 안 나가면 내부 부품들 위치와 Beam의 각도를 많이 조정해야 하므로 차라리 기달리는 편이 마음이 편하다고 해서 결국 만들어서 비싸게 판매한 적도 있었습니다. 5 년 후에 똑같은 polarizer 가 또 필요하다고 했을 때 Calcite polarizer production 을 중지했기때문에 못 판다고 했더니 그 연구원이 크게 실망하는 것을 들으며 참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결론은 제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우리 인간의 머리로 도전해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Parker Solar Probe 가 이런 Challenging project 라고 봅니다. ■



## 뉴멕시코주 한인 교회 안내

###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류종재 목사 (505) 385-6545  
 주일예배 시간: 오후 1:30 pm  
 영어예배 시간: 오후 12:00 pm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87112 웹사이트: home.kcmusa.org/disciples

###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김재태 목사(972)-822-1239  
 주일예배 시간: 10:30 am  
 새벽예배및 기도회: 5:30am(mon-sat)  
 금요일예배및 기도회: 7:30pm-10pm  
 주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 라스 쿠르세스 장로교회 (Las Cruces)

유평산 목사 (915)329-3451  
 주일예배 시간: 10:30am  
 주소: 200 E. Boutz rd, Las Cruces, NM88005

###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한인 교회 (Los Alamos, Santa Fe)

김석훈 목사 (626)272-1042  
 주일예배 1부 시간: 11:30 am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e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church.net

###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Korean Worship) 11:00 am (Sunday)  
 영어예배 (English Worship) 9:45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 11:00 am (Sunday)  
 수요일예배 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 5:30 am (Tue-Fri) 6:00 am (Sat.)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umcabq.com

###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lbuquerque)

윤성열 목사 (505) 331-9584  
 주일예배 시간: 오전 9:00 am / 오전 11:00 am  
 새벽기도회 5:45 am (Tue-Fri)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7:00 pm  
 주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민명희 스텔라 사목회장  
 이성희 요한 총무/기획부장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87110  
 소공동체(화,오전), 성령기도회(수,저녁),  
 금요일기도회(금,저녁)  
 웹사이트: cafe.daum.net/abq-catholic

### 주님의 교회 (Albuquerque)

The International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  
 김의석 목사 (505) 903-2297  
 주일예배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6:00 am (월~토)  
 성경공부 매주 목요일 10:00 am(교회)  
 \*Women's English Bible study 격주 금요일 10:00am  
 \*English Bible conversation group for young adults and  
 UNM students 매주 일요일 1pm @ church.  
 주소: 12120 Copper Ave.NE,Albuquerque,NM 87123

### 클로비스 한인 교회

이성희 목사 (575-791-1453)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Connelly St. Clovis, NM 88101  
 주일예배: 12:00pm 수요일모임 11:30am  
 금요일예배: 7:30pm  
 새벽기도회: 6:00am(월-금)

###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 (505) 453-5461  
 주일예배: 12:00 am (한국어) 1:00 pm (Indian 영어)  
 주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광야의 소리 페이스북에서**  
 더 많은 관련사진과 새로운 소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  
voiceofnm/**



광야의 소리 지난호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voiceofnm.kumcabq.com**

#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등록을 원하시면 voiceofnm@gmail.com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는 무료.

<b>알버커키 Albuquerque</b>	Kelly Liquors #5 6124 4th St NW (505) 828-1133	<b>식당 Korean Restaurant</b>	<b>식품점 Korean Grocery</b>	Matthew Lee's Hair Style (홍정희) 11901 Menaul NE (505-271-1056)
<b>건축/페인트 Painting</b>	Kelly Liquors #7 1418 Juan Tabo NE (505) 292-4520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A-1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NE ABQ (505-275-9021)	Nob Hill Barber Shop (Sunny 박선희)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	Kelly Liquors #8 11816 Central SE (505) 299-3366	Asian Pear 8101 San Pedro Dr. NE, Ste D ABQ (505) 766-9405	Arirang Oriental Marke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Plance Hair Salon(Tina) 4300 Ridgcrest Dr NW (505-907-9229)
<b>공인회계사 CPA</b>	Kelly Liquors #9 1903 Coors SW (505) 873-4477	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Kelly Liquors #10 4312 Coors SW (505) 877-2777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899-0095)	<b>의류 Clothes</b>	<b>자동차정비 Auto Repair</b>
<b>교회 Church</b>	Kelly Liquors #14 6300 San Mateo Blvd NE Suite R (505) 797-9966	I Love Sushi 6001 San Mateo Blvd NE ABQ(505-883-3618)	Best Outlet: 3300 San Mateo Blvd NE, ABQ (505-884-2202)	The Garage 자동차 정비 6441 western Trail NW (505-352-5152) 마이크 조 thegaragenm.com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652-4627)	Stadium Liquor 1306 Broadway SE ABQ, NM (505-242-8542)	Jasmine Thai & Sushi House 4320 The 25 Way, NE Suite 300, ABQ (505-345-0960)	Dot Clothing Co: 7200 Montgomery NE Suite C, ABQ (505-830- 9400)	<b>주택용자 Loan Officer</b>
<b>갈릴리장로교회</b> 2200 Chelwood Park Blvd. NE ABQ, NM87112	<b>부동산 Realtors</b>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Dot Clothing Co 9601 Sage Rd. SW ABQ 87121 (505) 831-8812	김미경 Mikyong Kim Bank of Albuq. Mortgage 3900 Vassar Dr. NE (Office 505-855-0586) (cell 505-379-2944) mkim@bokf.com
<b>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b> 601 Tyler Rd NE ABQ (505-803-7716)	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Fashion USA 201 San Pedro SE ABQ NM 87108 (505-255-0878)	<b>고산식 Lonnie Ko</b>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b>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b> 3315 Tower Rd SW ABQ (505-331-9584)	<b>사진관 Photo</b>	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6601)	GEM X Imports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99- 3420)	<b>중재서비스</b>
<b>주님의 교회</b> 12120 Copper Ave NE ABQ (505-903-2297)	Star Image 6600 Menaul Blvd. C-4 Abq, NM 87110 (505) 883-3112	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J-1 Import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6 (505-839-8697)	ADR-Mediai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
<b>단요가 Dahn Yoga</b>	Barbone's Cleaners 3812 Carlisle Blvd NE (505-881-4466)	A-1 한식 Cafe 6207 Montgomery Blvd. NE (505) 275-9021	NEXT Clothes/Gift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	<b>컴퓨터 서비스</b>
알버커키 505-797-2211 커튼우드 505-792-5111 산타페 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이스트마운틴 505-286-3535 www.dahnyoga.com	Executive Cleaners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505-299-5858)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BQ 87109 (505-797-8000)	<b>이발소 미장원 Hair Cut</b>	SH Consulting(이성희) 505-933-9004 Remote/Onsite Computer Support.
<b>리커스토어 Liquors</b>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Yummi Hous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	Salon 47(황경희 Kay Latham) 5850 Eubank Blvd., NE (505-225-4983)	<b>치과 Dental Clinic</b>
Casa Liquor 1649 Bridge Blvd. SW (505) 247-2525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505-266-3231)		Hair Dynamic(Ashley) 1500 Wyoming Blvd. NE #47 (505-296-2335)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Kelly Liquors #2 5850 Eubank NE (505) 291-9914				



#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등록을 원하시면 voiceofnm@gmail.com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는 무료.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

**태권도 TaeKwonDo**

---

Dynamic taekwondo  
academy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505)  
271-2000

---

**한의학 Acupuncture**

---

Dr. Chang: (장상순)  
2917 Juan Tabo Blvd. NE  
#B, ABQ NM87112  
(505-255-0878)  
sangsoonc@gmail.com

---

Dr. James D Park: (박달±)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6 87113  
(505- 797-5400)  
East West Integrated Pain  
& Rehab Center

---

**화원/원예 Nursery**

---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

**라스베가스  
Las Vegas**

---

**치과 Dentist**

---

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 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

---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

**공인회계사 ACC**

---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  
5800)  
(Fax 575-523-7700)

---

**카페/ 선물 Cafe/Gift**

---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  
0098)

**교회 Church**

---

라스크루세스 침례교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전화번호(972) 822-1239

---

**병원 Clinic**

---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

---

**리커스토어 Liquors**

---

Kelly Liquors  
3850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22-4646

---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

**건강식품 Health Food**

---

인성내츨: Los Alamos (505-  
662-9681)

---

**미장원 Hair Salon**

---

차진주 헤어(Peal's Place)  
800 Trinity #E  
Los Alamos  
(505)412-5294

---

**교회 Church**

---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626)272 -1042)

---

**리오란초  
Rio Rancho**

---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

Maki Yaki  
4300 Ridgecrest Dr. SE  
Suite#O Rio Rancho, NM 87124

---

**리커스토어 Liquors**

---

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8855)

**버나리요/벨렌/  
보스키팜 /로스루나스  
Bernalillo/Belen/Bosque  
Farms'Los Lunas**

---

**식당  
Chinese Restaurant**

---

Bamboo Express  
143 Highway 314 SW  
Los Lunas NM87031  
(505) 866 6888

---

**리커스토어 Liquors**

---

Kelly Liquors  
408 Hwy 550W, Bernalillo,  
NM87004  
(505) 867-5838

---

Kelly Liquors  
300 N Main st.  
Belen, NM87002  
(505) 864-2242

---

Kelly Liquors  
395 Bosque Farms Blvd.  
Bosque Farms, NM87002  
(505) 916-5656

---

**산타페  
Santa Fe**

---

**손톱미용 Nails**

---

Tiffany Nails(윤성희)  
410 Old Santa Fe Trl. #E  
(505)982-6214

---

**변호사 Law Firm**

---

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87502  
(505)988-4476  
jroh@cuddymccarthy.com

---

Greg Camp 변호사  
505-231-6848  
451 Cerrillos Rd.  
Santa Fe, NM87501  
(아내:이윤정 한국어통화  
405-655-2599)

---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

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

---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Osaka (Traditional Japa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

---

**베이커리 Bakery**

---

베이커리 B&B(양성권)  
38 Burro Alley  
Santa Fe, NM87501  
(213)369-1604

---

**리커스토어 Liquors**

---

Kelly/ De Arco Liquor  
(@Solana Center)  
915 W. Alameda St.  
Santa Fe, NM 87501  
(505) 954-1399

---

Kelly /Liquor Barn  
2885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960

---

Kelly Liquor  
4300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206

---

**교회 Church**

---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87501  
(505)699-4775

---

**클로비스  
Clovis**

---

**교회 Church**

---

클로비스 한인 교회  
Korean Full Gospel Church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91-1453)

**백화점 Mart**

---

T-Mart  
120 W 21st St.  
Clovis, NM 88101  
(575)218-3764

---

**식당 Restaurant**

---

Shogun Japanese Steak House  
600 Pile St.  
Clovis, NM 88101  
(575)762-8577

---

**식품 Korean Grocery**

---

K's Oriental Food Store  
921 Main St.  
Clovis, NM88101  
(575)762-8660

---

**치과 Dentist**

---

KidsKare PC Family Dentists  
600 Texas St.C  
Clovis NM88101  
치과의사:박요셉-Sherry 부부  
(575)-762-1900

---

**화밍톤  
Farmington**

---

**교회 Church**

---

화밍톤 침례교회: 511 W. Ar-  
rington, Farmington (505-453-  
5461)

---

**상점 Store**

---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New Mexico  
2018년 9/10월호  
발행일 : 2018.9.1.  
발행인 : 김기천 (Rev. Kee-Cheon Kim)  
편집위원장 : 이경화 (Kyong Hwa Lee)  
출판부장 : 권구자 (Koo-Cha Choy)  
광고담당 : 신옥주 (Ok-Ju Shin)  
발행처: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출판부  
Korean UMC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Mail : voiceofnm@gmail.com  
(505)341-0205

광야의 소리11-12월호 원고는10월25일까지 받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독자 여러분의 좋은 글 또는 사진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단 정치적인 글은 사양합니다.)

# KELLY LIQUORS 구인

1903 Coors Blvd SW.  
Albuquerque, NM 87121

켈리 리퀴어에서 일하실분을 찾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토,일,월,화 12:00-9:00PM  
(남, 여 상관없음) 연락처: 505-470-5559



## A-1 한국식품

한국음식카페 CAFE

A-1 ORIENTAL MARKET

日本の食品

Mon-Sat 10:00am-7:00pm  
Closed on Sunday  
(505) 275-9021

Website: [www.alorientalmarket.com](http://www.alorientalmarket.com)  
[www.facebook.com/a1orientalmarket/](http://www.facebook.com/a1orientalmarket/)

몽고메리/산페드로 코너

6207 Montgomery Blvd. Albuquerque NM 87109

## The Garage AUTO REPAIR

30년 경험의 한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소입니다  
2년 연속 앨버커키저널 독자가 선정한 최고의 자동차 정비업소  
문의사항 (505)352-5152



근무시간: M-F 7:00am-6:00pm (토,일 휴무)

웹사이트: <http://thegaragenm.com>

주소: 6441 Western Trail NW Albuquerque, NM 87120



## CUDDY & McCARTHY, LLP

Attorneys at Law

(<http://cuddymccarthy.com>)

우리 로펌은 1917년에 근간을 둔  
다양한 분야의 법률대리를 담당하는  
종합법률사무소로서 산타페와  
앨버커키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한 노영준(Jun Roh)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 87505  
Tel: 505-988-4476



##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 87109  
phone (505) 797-8000  
fax (505) 797-4090

[www.abqsushiandsake.com](http://www.abqsushiandsake.com)

Lunch  
11:30-2:30 Mon-Sat

Dinner  
5:00-9:30 Mon-Thur  
5:00-10:00 Fri-Sat  
12:30-8:00 Sunday

# R1 NEW MEXICO

THE FUTURE OF REAL ESTATE



김영신/부동산중개인

Yong Shin Kim

505.321.7695

[yongshinkim001@gmail.com](mailto:yongshinkim001@gmail.com)

[www.R1newmexico.com](http://www.R1newmexico.com)

505.883.9400